

화학성분 분석 표준물질 국산화

아나팩스, AnApure 개발 ... 상업용 표준물질로 80여곳 공급

물질에 포함돼 있는 각종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상업용 표준물질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돼 산업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대덕밸리의 바이오 벤처기업 아나팩스(대표 이계호)는 중금속 포함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상업용 표준용액 AnApure를 개발했다.

시료분석 표준물질은 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1만1000여종이 개발돼 각종 화학물질 성분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표준물질은 각 화합물 속에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아나팩스가 개발한 표준용액은 국내 각종 산업현장 및 연구소 등에서 그 동안 전량 수입해 사용해오던 상업용 표준물질 중의 하나로 국산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현재는 국내 80여곳에 이르는 산업현장 및 연구소 등에서 중금속 관련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표준용액 제조기술 이외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물질분석 방법을 개발, 각종 산업에 접목시키는 것도 아나팩스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분야이다. 환경, 반도체, 첨단소재, 금속, 식품, 농수산물 등 모든 산업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석평가에 대해 적절한 표준용액 선택 등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2002년 안으로 표준물질 생산기관(ISO34)과 분석 컨설팅(ISO17025) 국제 인증을 받게되면 표준물질과 분석 컨설팅 자료가 OECD 모든 국가에 국가 표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나팩스는 전세계 1만여종에 이르는 상업용 표준물질 가운데 한가지를 국산화한 것에 불과하나 국내 상업용 표준물질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042)823-7241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16 >